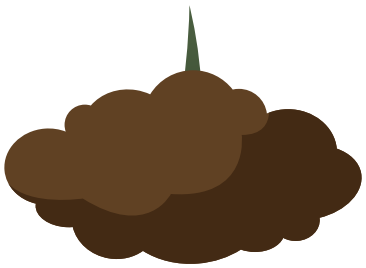


부모님께서 하나님 말씀을
제게 심으셨습니다

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
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
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(시 1: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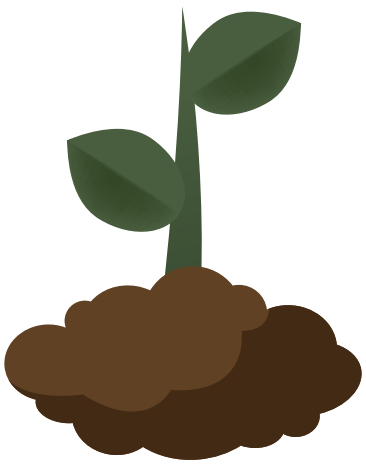
나만의 하나님을
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





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,
다른 이를 섬기며,
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

점점 신앙심이 깊어지고
커지는 것 같았습니다





하지만,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.
예배와 QT가 너무 졸리기도 하고,
귀찮았기 때문입니다

저는 많은 착오를 겪으며
그동안 갖고있던 제 신앙심에
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





그러다가
학교 QT 시간에 나눔을 통해
부모님이 심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

저는 하나님께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
언젠가 저도
묵상의 꽃을 피울 수 있겠죠?

